

광주에도 '배구의 계절' 이 온다



도드람 2021-2022 V리그 16일 개막 AI페퍼스 19일 광주서 역사적 첫 경기 홈피·유튜브 등 SNS서 각종 정보 제공

광주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여자배구단이 첫 참가하는 도드람 2021-2022 V리그가 16일 개막한다.

올 시즌은 이날 오후 2시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남자부 대한항공-우리카드 경기를 시작으로 6개월 동안 진행된다.

AI페퍼스는 19일 오후 7시 안방인 페퍼 스타디움(옛 영주종합체육관)에서 KGC인삼공사와 역사적인 첫 경기를 치른다.

정규리그는 남녀 모두 팀당 6라운드씩 36경기를 치른다. 지난 시즌까지 여자부 팀당 경기 수는 30 경기였으나, 신생팀 AI페퍼스가 가세해 36경기로 늘었다.

경기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팬들을 찾아간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남녀부 경기 시작 시간은 오후 7시다.

정규리그는 2022년 3월 17일까지 이어지며, 승점 3 이내에서 정규리그 3위와 4위가 결정되면 두 팀은 준플레이오프 단판 대결을 벌인다. 여자부 준플레이오프는 2022년 3월 19일, 남자부는 다음날에 각각 열린다. 플레이오프는 3전 2승제로, 챔피언결정전은 5전 3승제로 진행된다.

올 시즌에서는 '주심 자체 비디오 판독'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주심이 직접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제도로, 랠리 종료 시 불명확한 상황이라 판단하면 주심은 감독들의 요청이 없더라도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컵대회에 나오지 못했던 '볼리트리버'와 '킥 파파'도 돌아온다. 볼리트리버는 서브를 위해 공을 굴려주는 역할, 킥 파파는 코트를

뛰는 역할이다. 이들은 이전 시즌 10명에서 올 시즌 8명으로 줄여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 홈구장에서는 팬들의 함성도 들을 수 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개막전에서 광주 페퍼 스타디움과 대전 충무체육관 두 곳에서만 정부 지침에 따라 수용 인원의 최대 2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페퍼 스타디움은 지상 5층에 총 8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정부 방역 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페퍼 스타디움 내 1-2층(3000여석)을 개방하고, 이 중 20% 수준인 600여석에 입장할 수 있다.

개막전 이후 관중 입장 계획은 방역 지침에 따라 변동될 예정이다.

AI페퍼스도 오는 19일 팬들과 첫 만남을 기다리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AI페퍼스는 현재 클럽하우스인 경기도 용인 '드림파크'에서 훈련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박사랑·박은서·서채원·김세인·박연하·이은지 등 신인 6명도 오는 14일 전원 복귀한다.

약재도 있었다. 지난 11일 '177cm 장신 세터' 박사랑이 전국체전서 충북 제천여고를 상대하다 백토스 이후 선심 발을 밟고 넘어져 발목이 접질리는 사고를 당했다.

구단 관계자는 '박사랑은 12일 구단으로 복귀했다. 다행히 뼈를 다치는 큰 부상은 아니고, 한달여간 휴식을 취하며 경기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사랑의 첫 출전은 늦어졌지만, 구단은 전력누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대신 이현·구슬 2명의 세터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지난 1일 오후 광주 서구 영주종합체육관에서 페퍼저축은행 여자프로배구단 AI페퍼스 선수들이 목포여상과의 연습경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AI페퍼스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네이버 포스트, 유튜브 등 SNS 채널도 오픈했다. 이곳에서는 포지션별 선수 정보와 구단 소식, 매 경기 관전포인트, 창단준비과정 등 다룬 디지털 다큐 등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AI페퍼스는 홈페이지 및 SNS 채널 오픈을 기념해 SNS 팔로우 이벤트를 진행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포스트 채널을 팔로우하고 이벤트 게시물에 응원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당첨자는 22일 AI페퍼스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표되며, 당첨자에게는 AI페퍼스 선수단 전원의 친필 사인이 담긴 배구공, 지난 창단식에서 선수들이 착용한 유니폼 상의와 사인, AI페퍼스가 각인된 '구글 홈 미니 AIS피커' 등 경품을 제공한다. /연합계 기자 yjyou@kwangju.co.kr

KIA 나주환 은퇴 ... 지도자의 길 간다

웨이버공시 신청

KIA 타이거즈의 베테랑 내야수 나주환(37)이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KIA는 12일 한국야구위원회에 나주환에 대한 웨이버공시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나주환은 현역 생활을 끝내고, 지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나주환은 최근 구단에 현역 생활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구단은 이를 받아들여 웨이버공시를 신청했다.

그라운드를 떠나는 나주환은 KIA 잔류군에서 유망주 선수들을 지도할 예정이다.

나주환은 "현역 생활의 마지막 기회를 준 KIA 타이거즈 구단과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지도자로서 후배들이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언급했다.

2003년 두산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나주환은 SK(현 SSG)를 거쳐 지난해 무상 트레이드로 KIA 유니폼을 입었다.

전천후 수비수로 활약하며 줄부상으로 흔들리던 내야를 지킨 나주환은 올 시즌에는 '임시 주장' 역할도 하면서 팀을 이끌었다.

나주환은 올해까지 KBO리그에서 17시즌을 보내며 1506경기에 출전해 1018안타(89홈런), 524득점, 496타점, 타율 0.262의 기록을 남겼다.

윌리엄스 감독은 "지난해 중요한 순간에 해결을 하고 팀에 도움을 많이 줬다"면서도 "그런 활약이 양날의 검이 되기도 했다. 허리가 좋지 않았는데 많은 경기에 나오면서 허리에 무리가 갔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올 시즌에도 부상으로 역할이 제한적이었다"고 아쉬워했다.

하지만 "오늘이 코치로서 첫 날이다. 첫 날을 보내고 경기장에 다녀갔다"며 나주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코치진과 선수단을 묶는 역할을 기대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기본기가 좋고 게임에 대한 감각이 있는 선수다. 젊은 선수들에게 많은 부분을 가르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얼마 전까지 동료로 지냈기 때문에 선수들도 잘 이해하고 소통 역할도 잘 할 것이다. 젊은 선수들이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을 단축시켜 줄 매개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나주환

KIA 최원준 내년 시즌 입대 여부 관심

남은 경기 선발진 운영 새 양상



'호랑이 군단'의 선발 테스타 새 양상을 맞는다.

지난 10일 한화 원정경기에서 더블헤더를 소화했던 KIA는 17일 잠실 두산전에서 다시 하루 두 경기를 치러야 한다. 2주 연속 7연전 일정이 진행되면서 마운드, 특히 선발진 운영이 관심사다.

선발 로테이션이 부지런히 돌아가야 하는 한 주. 하지만 KIA는 12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에서 앞서 2명의 선발 투수를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투수 이민우와 한승혁이 엔트리에서 빠졌고, 내야수 최정민과 최정용이 등록됐다. 이민우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인한 특별 엔트리 탈소. 한승혁은 무릎 염좌로 엔트리에서 빠졌다.

한승혁은 지난 9일 한화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3회를 소화한 뒤 미세한 무릎 통증으로 일찍 등판을 마무리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검진 결과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다. 1단계 염좌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무리할 필요가 없어서 탈소를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지난 9월 1일 두산전 구원 투수로 2018시즌 이후 3년 만에 복귀전에 나선 한승혁은 9월 12일 NC전부터 선발로 투입됐다. 이후 5차례 선발로 나와 20.2이닝 동안 4.79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승 없이 3패만 남겼다.

예정대로라면 15일 KT 원정에서 선발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무릎 통증으로 빠지면서 퓨처스리그 선발진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됐다.

윌리엄스 감독은 "한승혁이 금요일에 던질 예정



최원준

이었는데 빠지게 되면서 대체 선발을 생각하고 있다. 퓨처스리그에서 대체 선발이 투입될 예정이다"며 "이민우는 백신을 맞아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민우가 일요일 선발로 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접종을 한 이민우는 넉넉히 휴식을 취한 뒤 더블헤더가 열리는 17일 다시 선발로 마운드에 오를 예정이다.

남은 시즌 마운드와 함께 외야에도 시선이 쏠린다. 특히 최원준의 거취가 관심사다.

고졸 6년 차인 최원준은 올 시즌 목표로 했던 도쿄 올림픽 승선을 이루지 못했다. 내년 시즌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있기는 하지만 23세 이하를 중심으로 대표팀을 꾸릴 방침이다. 와일드카드라는 마지막 기회가 있지만, 외야 경쟁이 만만치 않다.

그런 만큼 시즌이 저물어 갈수록 최원준의 입대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일단 최원준이 없는 방향으로 내년 시즌을 계산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만약 팀에 잔류한다면 보너스라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도 함께 한다면 좋겠지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윌리엄스 감독이 뽑은 옵션은 외국인 선수, 내부 선수, FA영입 등이다. 현재는 내부 상황에 집중하는 게 남은 시즌의 과제다.

윌리엄스 감독은 "내년 시즌 메인으로 갈 선수들은 여기 1군에 있다. 추가로 보고 싶은 선수들도 이곳에 있다. 오선우, 김호영 등도 있지만 일단 봤던 선수들이라서 2군 선수들에게 눈길을 주고 있다. 외야에 있는 선수들을 체크하고 있다"며 "아직 시즌이 남아있고, 캠프를 통해서 확인할 부분도 있다. 통합적으로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별써 ... 독일, 카타르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독일이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가장 먼저 골인했다. 또 18회 연속 월드컵 진출에 성공했다.

독일은 12일(한국시간)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의 토세 프로에스키 경기장에서 열린 북마케도니아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유럽예선 J조 8차전에서 티모 베르너의 멀티골을 앞세워 4-0으로 대승했다.

2경기를 남겨놓은 가운데 승점 21(7승 1패)을 쌓은 독일은 2위(승점 13·4승 1무 3패) 루마니아와 격차를 8점으로 벌려 각 조 1위에게만 주어지는 본선 직행 티켓을 일찍 거머쥐었다.

독일은 국제축구연맹(FIFA) 가맹국 중 개최국인 카타르를 제외하고 가장 먼저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했다.

오래 유럽 강호로 군림해온 독일은 통산 20번째 월드컵 본선행에 성공했다.

또 1954년 스위스 대회 이후 18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기록을 썼다. 이는 유럽 나라 중 최다 기록이다.

독일은 첫 월드컵인 1930년 우루과이 대회에 불참했고, 4번째 월드컵인 1950년 브라질 대회는 제2차 세계대전 추축국이라는 이유로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퇴출당한 상태여서 참가하지 못했다. /연합뉴스